이스라엘 업데이트

©아/예르 인트레이터, 2008 년 2 월 15 일

무레니야(Mureniyah) 사망

세계에서 (오사마 빈라덴 *Osama bin Laden*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테러 지도자 이마드(Imad) 무레니야가 이번 주 다마스커스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테러 활동 계획 및 지휘를 담당하였고, 이란과 시리아와의 협동 작전을 통솔했습니다. 월요일 밤(2 월 11 일), 그는 이란 이슬람 혁명 29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비밀리에 입국했습니다.

다음날인 2 얼 12 일 화요일 밤 10 시 30 분경, 그는 서(西) 다마스커스의 크파르 수사(Kfar Susah)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경호원과 함께 자신의 은색 빠헤로(Pajero)에 탔고, 시동을 켰을 때 좌석 밑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이 터졌습니다. 무레니야와 경호원은 즉사했지만, 그 밖의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지도층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나스랄라는 선전을 포고하며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공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연히) 일절 연루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올메르트(Olmert) 총리, 바락(Barak) 국방부 장관과 메이르 다간(Meir Dagan) 모사드장(Mosad 長)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션 맥코믹(Sean McCormick)은 간단한 성명을 통해 "이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세계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 했습니다.

무레니야의 "위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3 년 10 월 23 일 – 베이루트의 미군 기지 파괴, 299 명 사망.

✡1983 년 11 월 4 일 – 타이어(Tyre, 두로)의 이스라엘 기지 파괴, 29 명 사망.

✡1985 년 3 월 10 일 – 메툴라(Metulla, 이스라엘 북부) 외곽의 대상(隊商) 폭격, 12 명 사망.

✡1985 년 6 월 – TWA 항공 847 편(아테네 발 로마 행) 납치, 미국인 선원 살해 후 활주로에 시신 투척.

✡1992 년 3 월 17 일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이스라엘 대사관 파괴, 29 명 사망.

✡1994 년 7 월 18 일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유대인 회관 파괴, 85 명 사망.

✡2000 년 10 월 7 일 – 오마르 싸와드(Omar Sawad), 베니 아브라함(Benny Avraham), 아디 아비탄(Adi Avitan) 납치

✡2002 년 3 월 12 일 – 메쭈바(Metzuvah) 근방 마을 폭격, 6 명 사망.

✡2006 년 7 월 12 일 – 엘닫 레게브(Eldad Regev)와 에후드 골드바쎄르(Ehud Goldwasser) 납치, 그 외 8 명 살해.

이스라엘 보안군은 그가 또 다른 대형 테러 폭파를 계획하고 있음을 확신, 실행 이전에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무레니야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친척들 중 많은 이스라엘 국적자들이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했습니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온 대답은 그의 죽음이 기쁨이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르에 가는 페에르

이스라엘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 샤하르 페에르(Shachar Pe'er)가 이번 주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로 출국하여 역사적인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선수가 아랍 이슬람의 페르시아-걸프 만 지역 국가 경기에 최초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테니스 경기를 통해 세계를 다니는 그녀를 일종의 친선 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IDF 에 전해진 복음(福音)

이번 주, M 과 T 는 이스라엘 군대 내 유대교에 열심인 30 명 가량의 장교들에게 초청을 받아 메시아닉(Messianic, 예슈아를 약속된 유대의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의 의미에 대해 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논의와 논쟁은 약 두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짤막한 교육 자료:

우애와 제자도

예슈아께서는 제자도를 단계별로 진행되는 훈련 과정으로 보셨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우애였습니다.

요한복음 15:14-15 –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순종의 단계를 통해, 예슈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전하셨습니다. 각각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단계를 통해,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위들을 더 주셨습니다. 그들은 친구로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종됨은 온전한 우애로 변하였습니다.

예슈아께서도 친히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과 같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도를 통해 그들은 그 분과 같은 성품을 계발했던 것입니다. 같은 성품을 계발하게 된 그들은, 동일한 마음의 태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점점 더 친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예슈아의 친구였습니까? – 그 분의 제자였던 바로 그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 예슈아와 함께 훈련과 복종, 성품 계발의 과정을 비슷하게 겪은 이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즉시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순 없습니다.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반항하고 우정의 충의를 배반할 것입니다. 제자화의 과정 없이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 순종과 훈육 자체는 자녀 양육이나 제자화의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과 훈육을 가르치는 것은 우애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육아와 제자화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든 훈련을 받는 사람이든, 과정의 끝에 가서 진실된 친구가 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번역- 고병현